

5월 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사흘만에 하락..스트레스 테스트 경계	최근 급등으로 S&P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가운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19개 미국 은행중 10개 은행이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했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이날 의회 증언에서 "경제의 위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이 바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에 또 다른 충격이 올 경우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반등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장초반 등락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던 주요 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를 나타냈다. 장후반 들어 버냉키 의장의 발언과 지표 개선에 힘입어 낙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반등에는 실패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410.65로 전일대비 16.09포인트(0.19%) 하락했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54.12로 9.44포인트(0.54%) 내렸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903.80으로 3.44포인트(0.38%) 밀려났음.
美 10개 은행 추가 자본확충 필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19개 미국 은행 가운데 10개 은행이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미국 정부는 당초 지난 4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주요 은행의 이의 제기로 인해 7일로 연기하였고, 미국내 은행들은 금융감독 당국과 추가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연준과 재무부는 이날 주요 은행들에 공식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며 결과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냉키 "경제 위축 속도 둔화..금융충격 재발 시 경제회복 지연"	버냉키 의장은 "경제의 위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이 바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음. 그러나 "금융시스템에 또 다른 충격이 올 경우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반등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성 언급도 하였음. 버냉키 의장은 "지난 가을에 시작돼 올해 초까지 이어진 경제의 가파른 위축세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올해 말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고,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음.

제목	주요 내용
4월 서비스업 위축 속도 둔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4월 서비스업(비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40.8에서 43.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전망도 웃돈 수준이며, 마켓워치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는 각각 42.0, 42.2였음. 이로써 서비스업 지수는 7개월 연속 50을 하회, 위축세를 이어갔음.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유가 닷새만에 하락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닷새만에 하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6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63센트(1.2%) 내린 53.84달러를 기록했다. 6일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원유 재고가 1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 하락의 배경이 되었음.
버핏 "韓경제 낙관..주식 추가매입 검토중"	버핏은 3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 이후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전망과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향후 몇 년간 잘해나갈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버핏은 "지난해에 개인 포트폴리오에 1개 한국 종목을 추가했으며 회사 차원에서 추가 매입을 위해 여러개 종목들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매입한 종목과 업종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명은 밝힐 수 없고, 해당 업종 내에 기업수가 많지 않아 업종도 공개하기 어렵지만 큰 기업(big company)"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매입을 검토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버크셔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기업(big company)이 필요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 "한국, 2014년까지 2만弗 소득 힘들다"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2014년까지 2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특히 이 기간동안 물가상승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아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수정보고서에서 2007년 2만 1,695달러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불어닥친 지난해에는 1만 9,231달러로 줄었고, 올해는 1만 4,945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음.
기아 쏘울 미국에서 히트 조짐	기아차 쏘울이 미국 텍사스 기자협회(TAWA- Texas Auto Writers Association)가 선정하는 `최고 가치의 모델`상을 수상했음. 쏘울은 지난달 미국시장에서 3,000대 넘게 팔려 북미시장 진입이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음. 4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쏘울은 텍사스지역 자동차 전문기자들의 연례행사인 `스프링 챌린지(Spring Challenge)`에서 쿠페, 크로스오버, 세단, 스포츠카 등 다수의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최고 가치의 모델`로 선정되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